

영보이 국어 2017경찰1차 국어 문제와 자세하고 신선한 영보이 해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와 함께 신선하고 자세한 해설 올려 드립니다. 해설만 읽어도 기본서를 읽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영보이 암기법이 있어 매우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실 때 칼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색 깔이 칠해 있어 암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영보이 저서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문제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2017경찰1차 문1)

- ① 시계 [시계/시계]
- ② 문법 [문뺨/뭉뺨]
- ③ 읊고 [읍꼬]
- ④ 되어 [되어/되여]

(문제1)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1)

① 시계 [시계/시계] (O)

◆ ‘예, 레’는 [예], [레]로만 발음하지만 ‘예, 레’ 이외의 ‘께’는 [께]로 발음할 수 있고, [ヶ]로도 발음할 수 있다.

② 문법 [문뺨/뭉뺨] (X) → [문뺨]

제

◆ ‘문법’은 [뭉]이 아니라 [문]으로만 발음한다. 따라서 ‘문법’은 [문뺨]으로 발음한다.

정

③ 읊고 [읍꼬] (O)

마

◆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④ 되어 [되어/되여] (O)

◆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모음 충돌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되 + 어→되어’는 [되어]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때로 모음 충돌을 피한 발음인 [되여]가 쓰이기도 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 허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오, 아니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되어 [되어 / 되여]

◆ 피어 [피어 / 피여]

◆ 이오 [이오 / 이요]

◆ 아니오 [아니오 / 아니요]

(문제1) 정답: ②

(문제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7경찰1차 문2)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 ③ 음절 초에 ‘ㄱ’, ‘ㄷ’,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 - 경음 - 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X)

(문제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3)

-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첨가 :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 ③ 축약 :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문제3)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3)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X) → 탈락이 아니라 **연음현상**

◆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것은 연음현상이다. < 예: 값을[갑쑈], 밭아[발바], 맑아[말가]

◆ 脫落(탈락):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가+아서’가 ‘가서’로, ‘울+는’이 ‘우는’이 되는 것 따위이다.

② 첨가 :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O)

◆ 음운첨가: 말소리를 낼 때에, 그 말의 원꼴과는 관계없는 음이 첨가되어 그 소리가 바뀌는 일. ‘밤일’이 ‘밤닐’로, ‘솜이불’이 ‘솜니불’로 발음되는 경우를 말한다

◆ ‘ㄴ’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샷-일[상닐]
맨-입[맨입]	꽃-잎[꼇닙]	내복-약[내:봉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갱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엽-용[영엽뇽]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누리]	밤-웃[밤:눈]

◆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녘/거: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녕/그똥]	

③ 축약 :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O)

◆ 縮約(축약):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상. ‘종고’가 [조코]로, ‘국화’가 [구과]로, ‘가리+어’가 ‘가려’로, ‘되+어’가

‘돼’로 되는 것 따위이다.

◆ 有氣音(유기음)은 거센소리를 말한다.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O)

◆ 교체(交替): 동일한 어근에 속하는 형태소가 음성적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일. ‘듣다[聞]’가 ‘들어’, ‘들으니’ 따위로 활용할 때 ‘ㄷ’이 ‘ㄹ’로 교체되는 것 따위이다.

◆ 유음화(流音化):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한라’가 ‘할라’, ‘실눈’이 ‘실룬’이 되는 것 따위이다.

◆ 同化(동화): 소리와 소리가 이어서 날 때에, 한 소리가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음운 현상. 모음조화, 원순 모음화, 유음화 따위가 있다.

(문제3) 정답: ①

(문제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경찰1차 문4)

㉠ 첫사랑

㉡ 횃수

㉢ 등곶길

㉣ 소나깃밥

① ㉠㉡

② ㉠㉢

③ ㉡㉢

④ ㉡㉢㉣

(문제4)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4)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등곶길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첫사랑 (X): 첫(관형사)과 사랑(명사)의 합성어로 사잇소리현상이 아니다.

㉡ 횃수 (O) - [회쑤/횡쑤]

◆ 사이시옷을 쓰는 중요한 한자어: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 등곶길 (O) - 등교(登校) + 길(순우리말) / [등곶길/등교길]

㉣ 소나깃밥 (X) → 소나기밥[소나기밥]

◆ ‘소나기밥’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표준발음법 제30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나기밥: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

(문제4) 정답: ③㉡ 횃수, ㉢ 등곶길

(문제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2017경찰1차 문5)

저 나뭇잎은 참 빨갳다.

- ① 저 ② 은 ③ 참 ④ 빨갳-

(문제5)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5)

-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 따위이다. < ≡ 개념어·관념사·생각씨·실사(實辭)·어휘 형태소 >
- ◆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어간, 어미, 접사, 조사 따위가 있다.
- ◆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 따위가 있다. < ≡ 꼴조각·문법 형태소·허사(虛辭)·형식부 >
- ◆ **자립 형태소**: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따위이다.

① 저	관형사 / 실질 형태소 / 자립 형태소
나뭇잎	명사 / 실질 형태소 / 자립 형태소
② 은	조사 / 형식 형태소 / 의존 형태소
③ 참	부사 / 실질 형태소 / 자립 형태소
④ 빨갳-	형용사의 어근 / 실질 형태소 / 의존 형태소 < 어근(語根):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뎡개’의 ‘뎡-’, ‘어른스럽다’의 ‘어른’ 따위이다. >
다	어미 / 형식 형태소 / 의존 형태소

(문제5) 정답: ④ 빨갳-

(문제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6)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문제6)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6)

①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O)

◆ 기본자음(基本子音):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 < ㄱ, ㄴ, ㄷ, ㄹ, ㅁ / ㅂ, ㅅ, ㅇ, ㅈ, ㅊ / ㅋ, ㅌ, ㅍ, ㅎ > cf. 외래어의 받침은 'ㄷ' 이 아니라 'ㅅ' 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 단모음(單母音) 10개: < ㅏ, ㅑ, ㅓ, ㅕ, ㅗ / ㅛ, ㅜ, ㅠ, ㅡ, ㅣ >

cf. 중세국어: 훈민정음의 기본자모는 28개. < 한글자모 24개 + 'ㅇ(여린히음), ㅁ(받치음), ㅅ(옛 이음), ㅊ(아래아)' >

②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O)

◆ 골후(X) → 골프, 화일(X) → 파일, 화이팅 (X) → 파이팅

③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X)



→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외래어의 받침은 'ㄷ'이 아니라 'ㅅ'만을 쓴다. >

◆ 슈퍼마켓 (X) → 슈퍼마켓(ㅅ)/ 굳모닝 (X) → 굿(ㅅ)모닝

● cf. 하지만 발음을 할 때에는 '[ㄷ]'이다 < 슈퍼마켓 [슈퍼마켓] / 굿모닝 [굳모닝] >

④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빠리(X) → 파리, 꼬낙(X) → 코낙, 모짜르트(X) → 모차르트

◆ 파열음(破裂音):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따위가 있다. < ㄴ 달음소리·정지음·터짐소리·폐색음·폐쇄음 >

◆ 된소리: 후두 근육을 긴장하면서 기식이 거의 없이 내는 자음. 'ㄲ', 'ㄸ', 'ㅃ', 'ㅆ', 'ㅆ' 따위의 소리이다. ㄴ 경음(硬音)·농음(濃音)

(문제6) 정답: ③ 제3항

(문제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경찰1차 문7)

[2장]

불·휘 기·픈 남·근 북·매 아·니 : 밀·씨

곳 : 도·코 여·름 하·느·니

: 시·미 기·픈 ·므·른 ·긔·래 아·니 그·출·씨

: 내·히 이·러 바·락·래 ·가·느·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혀·산 漢水北·에

累仁開國·혀·샤 卜年·이 : 國 : 업·스시·니

聖神·이 : 니·스샤·도 敬天勤民·혀·샤·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락쇼·셔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定하산’, ‘아^아르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하^하쇼셔체에 해당한다.
- ③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즙-’(객체 높임법), ‘-이/ 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이,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문제7)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7)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定하산’, ‘아^아르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X)

→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이다. 하지만 ‘定^定하산’은 ‘-오/우-’가 쓰였으나 ‘아^아르쇼셔’는 ‘-오/우-’가 쓰이지 않았다.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하^하쇼셔체에 해당한다. (X)

→ ‘-니잇가’는 동사,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쓰이고 ‘하^하쇼셔’ 할 자리에 쓰이며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그리고 ‘-니잇고’는 동사,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의문사와 함께 쓰이고 ‘하^하쇼셔’ 할 자리에 쓰이며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③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즙-’(객체 높임법), ‘-이/ 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X)

→ ‘-시/샤-’(주체 높임법), ‘-습/습\즙-’(객체 높임법), ‘-이/ 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조사는 ‘하’가 쓰였다. 높임의 호격조사 ‘하’와 ^ㅎ종성 체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ㅎ종성 체언: 중세 국어에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ㅎ’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기음화할 수 있는 ‘ㄱ’, ‘ㄷ’, ‘ㅂ’ 앞에서는 그것과 결합하여 ‘ㅋ’, ‘ㅌ’, ‘ㅍ’을 만들며, 휴지(休止)나 관형격 표지 ‘ㅅ’, ‘ㅇ’ 앞에서는 탈락되었다. ‘값’, ‘겨쉴’, ‘깊’, ‘돌’ 따위로 80여 개가 있었다. < ^ㅎ받침 체언·^ㅎ종성 체언·히을 받침 체언 >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이,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O)

[2장]

불·휘 기·픈 남·곤 북·래 매 아·니 : 뭇·씨 <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

꽃 : 도·코 여·름 하·느·니 <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습니다. >

: 시·미 기·픈 므·른 ㅅ·래 아·니 그·출·씨 <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으므로 >

: 내·히 이·러 바·래 가·느·니 < 내가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하·산 漢水北·에 < 천 년이나 되는 매우 먼 옛날에 하늘이 미리 도읍지로 정한 한강의 북쪽인 한양에 >

累仁開國·헉·샤 卜年·이 : 𪛗 : 업·스시·니 < (육조께서) 여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나라의 운명이 끝이 없으니 / 육조: >

聖神·이 : 니·스샤·도 敬天勤民·헉샤·스 < 성인(후대 왕들이) (왕권을)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셔야 >

더욱 구드·시·리이·다 < (왕조의 기틀이) 더욱 굳을 것입니다. >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 임금들(후대 왕들)이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처럼) 낙수(황하의 지류)에 사냥 가서 할아버지(조상)를 >

미·드·니잇·가 < 믿었습니까? >

(문제7) 정답: ④

(문제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2017경찰1차 문8)

吾𪛗不喻慙𪛗伊賜等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

花𪛗折叱可獻乎理音如

고졸 것거 바도림다

㉡ ㉢ ㉣

① ㉠

② ㉡

③ ㉢

④ ㉣

(문제8)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8)

◆ 향찰(鄉札)은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인데,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향가는 보통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실질 형태소는 훈차를 사용하였다.

◆ 음차(音差): 차자 표기에서,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일

● 훈차(訓借): 차자 표기에서,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일

吾𪛗不喻慙𪛗伊賜等 <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

훈음훈음훈음음음음음

花𪛗折叱可獻乎理音如 <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

훈음훈음음음훈음음음음음

- 헌화가(獻花歌) -

◆ 헌화가(獻花歌): 신라 성덕왕(702~737) 때의 향가. 소를 몰고 지나가던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칠 때 부른 노래로, 4구체이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성덕왕: 정전 지급(722), 상원사종 주조, 국학재정비(국학에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화상을 당에서 가져와 안치함), 물시계인 누각(漏刻)을 최초로 만들.

(문제8) 정답: ③ ㉢折

(문제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9)

문장은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홀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홀문장이 뒤의 홀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9)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9)

-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X)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학교에 간 후 밥을 먹었다.'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선후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 할 수 있다.
-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 오늘은 비가 온다. (O)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홀문장 - 대등 - 홀문장
-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O)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홀문장 - ㉠ - 홀문장
-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O)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홀문장 - ㉠ - 홀문장

(문제9) 정답:①

(문제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경찰1차 문10)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문제10)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10)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X) → 공직자는 사회 현실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회 현실'에 대한 서술어가 없으므로 서술어를 넣어야 한다.
-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O)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아 올바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X) →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

◆ ‘환경을 순응하다’는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환경에’란 필수 부사어를 넣어야 한다.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X) →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 ‘반드시’는 일반적으로 긍정문에 쓰이므로 ‘절대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옳다.

(문제10) 정답: ②

(문제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11)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말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의 ‘추억에서’ -

-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문제11)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11)

-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O)
 ◆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 -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생어물을 팔며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O)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 시간이 지나 안 팔린 생선들의, 색이 변한 눈깔을 은전으로 비유하여 가난한 삶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O)
 ◆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 '별 받아 멀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소망하고 바라는 세계인 '별 받아'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너무 멀어 닿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X) →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은 웅기들이 밝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듯이 어머니가 말없이 글썽이며 흘리는 눈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11) 정답: ④

(문제12)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12)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르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носи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당사의 '찬기파랑가' -

- ①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②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③ ㉠에서 화자는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

(문제12) 정답 및 해설 (2017경철1차 문12)

①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O)

◆ 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와 충당사의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는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 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 신라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지은 10구체의 향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릴 때에 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지전(紙錢)이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충당사의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신라 경덕왕 때 충당사가 지은 향가. 화랑 기파랑의 고결한 인격을 밤하늘의 달빛과 시냇물, 그리고 서리에 시들지 않는 잣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으로, 10구체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②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O)

◆ ‘흐느끼며 바라보매’,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등으로 보아 기파랑을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다.

③ ㉠에서 화자는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 (O)

◆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 이올시 수풀이여.’로 보아 지금은 없지만 기파랑의 모습을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 (X)

◆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눈’은 기파랑의 인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나 고난’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갯이여. < 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는 시련과 고난도 기파랑의 인품을 덮지 못한다. >

(문제12) 정답: ④

(문제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철1차 문13)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분,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韻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 저 가기 무렴(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肴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뽀싸, 일이 났다.’

- ① ㉠ : 잔치에 어울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을 일컫는다.
- ② ㉡ : 언어유희적 표현에 의해 해학성이 나타난다.
- ③ ㉠ :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 ④ ㉡ : 운봉은 걸인이 어사또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문제13) 정답 및 해설 (2017경철1차 문13)

① ㉠ : 잔치에 어울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을 일컫는다. (X) → 느린 장단

◆ **진양조**장단: 민속 음악에서 쓰는 판소리 및 산조장단의 하나. 24박 1장단의 **가장 느린 속도**로, 정악(正樂)에서 사용하는 여민락만에 해당한다. < ≡ 긴조 >

● **휘모리**장단: 판소리나 산조(散調) 장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급하게 휘몰아 부르거나 연주하는 장단. < ≡ 단모리장단·세산조시 >

② ㉡ : 언어유희적 표현에 의해 해학성이 나타난다. (O)

◆ ‘고기의 갈비’와 ‘운봉의 갈비’의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이용한 언어유희(言語遊戲)적 표현이다. 따라서 해학성(諧謔性)이 나타난다.

◆ 언어유희(言語遊戲):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 말 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따위가 있다. < ≡ 말짓기놀이 >

③ ㉠ :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O)

◆ “肴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의 뜻을 알려 주므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다.

④ ㉡ : 운봉은 걸인이 어사또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O)

◆ ‘내념(內念)에 ㉡‘아뽀싸, 일이 났다.’로 보아 운봉은 걸인이 어사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며 속으로 하는 말이다.

(문제13) 정답: ①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15)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니, 막걸리라더니,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썽……,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몫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 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무슨 놈의 수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문제14)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14)

- ① ㉠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씬.
- ② ㉡ :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함.
- ③ ㉢ : 끈기가 있고 모질.
- ④ ㉣ :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

(문제14)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14)

◆ 이 글은 채만식의 ‘치숙(痴叔)’(1938)이다. < 채만식이 지은 단편 소설. 일본인 주인에 빌붙어 자신의 미래를 기약하는 조카의 시선으로 몰락한 사회주의자 숙부를 비판하는 형식을 통하여 오히려 조카의 태도가 비판을 당하게 하는 풍자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

- ① ㉠積功(적공)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씬. (O) < 積(쌓을 적) 功(공로 공) >
- ② ㉡鐵貧(철빈):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함. (O) < 鐵(쇠 철) 貧(가난할 빈) >
- ③ ㉢칙살스러운: 끈기가 있고 모질. (X) → 하는 짓이나 말 따위가 잘고 더러운 데가 있다. < 형용사, 기본형(칙살스럽다) >
- ④ ㉣後分(후분):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 (O) < 後(뒤 후) 分(나눌 분) >

(문제14) 정답: ③

(문제15)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15)

- ①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소설 속 관찰자가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결과적으로 긍정적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한다.
- ④ 현실적 삶의 방식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문제15)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15)

①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O)

◆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로 보아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② 소설 속 관찰자가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O)

◆ 소설 속 관찰자인 '나'가 아저씨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③ 결과적으로 긍정적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한다. (X) → 설명이 바뀌었다. 즉, **부정적 서술자인 조카 '나'가 긍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하는 것이다.**

④ 현실적 삶의 방식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O)

◆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로 보아 **아저씨의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

●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칩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로 보아 **아주머니의 현실적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다.

(문제15) 정답: ③

(문제1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2017경찰1차 문16)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고 부르니, 이분이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삼백예순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教化)하였다.

㉠ ㉡

- ① 桓雄 神壇水
- ② 桓雄 神壇樹
- ③ 桓熊 神端水
- ④ 桓熊 神端樹

(문제16) 정답 및 해설 (2017경철1차 문16)

㉔ 桓雄 神壇樹

㉔ 桓雄(환웅): 桓(뜻말 환) 雄(수컷 웅)

◆ 桓雄(환웅):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인물. 천제(天帝)인 환인의 아들로, 천부인 3개와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베풀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렸으며,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 桓雄(환웅)에서 ‘웅’자는 ‘熊(곰 웅)’이 아니라 ‘雄(수컷 웅)’이다. 그리고 ‘雄(수컷 웅)’에는 ‘隹(새 추)’가 들어 있다.

◎영보이 암기tip) 단군 신화에 나오는 桓雄(환웅)은 아들로 태어났으므로 수컷(雄: 수컷 웅)이라 할 수 있다.

㉕ 神檀樹(신단수): 神(귀신 신) 檀(박달나무 단) 樹(나무 수)

◆ 神檀樹(신단수):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 神檀樹(신단수)에서 ‘단’자는 ‘端(바를 단)’이 아니라 ‘檀(박달나무 단)’이다. 또한 ‘檀(박달나무 단)’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 있다.

● 神檀樹(신단수)에서 ‘수’자는 ‘水(물 수)’가 아니라 ‘樹(나무 수)’이다. 또한 樹(나무 수)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 있다.

◎영보이 암기tip) 단군 신화에 나오는 神檀樹(신단수)는 나무(木: 나무 목)와 나무(木: 나무 목)사이에 둘러 싸여 있다.

(문제16) 정답: ㉔

(문제17) 다음 내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철1차 문17)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① 殃及池魚 ② 渴而穿井 ③ 亡羊補牢 ④ 死後藥方文

(문제17) 정답 및 해설 (2017경차1차 문17)

◆ 이 글은 이규보의 ‘이옥설(理屋說)’이다.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로 보아 일이 벌어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이다.

① 殃及池魚(앙급지어): 殃(재앙 앙) 及(미칠 급) 池(못 지) 魚(물고기 어) (X)

◆ 의미: 재앙이 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제삼자가 엉뚱하게 재난을 당함을 이르는 말. 성문(城門)에 난 불을 끄려고 못의 물을 전부 퍼 온 탓으로 그 못의 물고기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類義語(유의어)

◆ 池魚之殃(지어지앙): 池(못 지) 魚(물고기 어) 之(갈 지) 殃(재앙 앙)

◆ 의미: 재앙이 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제삼자가 엉뚱하게 재난을 당함을 이르는 말. 성문(城門)에 난 불을 끄려고 못의 물을 전부 퍼 온 탓으로 그 못의 물고기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橫來之厄(횡래지액): 橫(가로 횡) 來(올 래(내)) 之(갈 지) 厄(액 액)

◆ 의미: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ㄴ 橫액(橫厄) >

② 渴而穿井(갈이천정): 渴(목마를 갈) 而 (말 이을 이) 穿(뚫을 천) 井(우물 정)

◆ 의미: 목이 말라야 그때서야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準備)하고 있지 않다가 어떠한 지나가버린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보아도 전혀 소용(所用)이 없다는 말.

③ 亡羊補牢(망양보뢰): 亡(망할 망) 羊(양 양) 補(기울 보/도울 보) 牢(우리 뢰(뇌))

◆ 의미: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뜻이다. >

④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 死(죽을 사) 後(뒤 후) 藥(약 약) 方(모 방) 文(글월 문)

◆ 의미: 사람이 죽은 뒤에야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의미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對策)을 세운다거나 후회(後悔)를 하여도 전혀 소용(所用)이 없다는 말.

< 약방문(藥方文): 약을 짓기 위해 약의 이름과 양을 쓴 종이 >

◆ ‘渴而穿井(갈이천정), 亡羊補牢(망양보뢰),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은 유의어이다.

★ 다른 유의어

◆ 晚時之歎(만시지탄): 晚(늦을 만) 時(때 시) 之(갈 지) 歎(탄식할 탄)

◆ 의미: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死後清心丸(사후청심환): 死(죽을 사) 後(뒤 후) 清(맑을 청) 心(마음 심) 丸(둥글 환)

◆ 의미: 죽은 뒤의 약이라는 의미로, 때를 놓친 것을 말함.

◆ 失馬治廐(실마치구): 失(잃을 실) 馬(말 마) 治(다스릴 치) 廐(마구간 구)

◆ 의미: 말 잃은 뒤에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낭패를 본 후 대책을 세운다는 말.

◆ 十日之菊(십일지국): 十(열 십) 日(날 일) 之(갈 지) 菊(국화 국)

◆ 의미: 한창때인 9월 9일이 지난 9월 10일의 국화라는 뜻으로,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반대 뜻을 가진 한자어(상대어)

- ◆ 居安思危(거안사위): 居(살 거) 安(편안 안) 思(생각 사) 危(위태할 위)
- ◆ 의미: 편안할 때라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
- ◆ 曲突徙薪(곡돌사신): 曲(굽을 곡) 突(갑자기 돌) 徙(옮길 사) 薪(섞 신)
- ◆ 의미: 굴뚝을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주위에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위험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
- ◆ 有備無患(유비무환): 有(있을 유) 備(갖출 비) 無(없을 무) 患(근심 환)
- ◆ 의미: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문제17) 정답: ① 殃及池魚

(문제18) 다음 한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2017경
철1차 문18)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 ①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③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 즉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글노 설워하느이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하노라.

(문제18) 정답 및 해설 (2017경철1차 문18)

- ◆ 이 시는 **황현의 '절명시(絶命時)'**이다. 황현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국권을 강탈당**하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절명시(絶命時)'를 짓고 자결하였다.
- ◆ 황현: 구한말의 시인·학자(1855~1910). 자는 운경(雲卿). 호는 매천(梅泉). 성균관 생원으로 지내다가 갑신정변 이후 민씨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환멸을 느껴 벼슬하기를 단념하고 귀향하여 시작(詩作)에 전념하였다. 1910년에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저서에 '매천야록(梅泉野錄)'이 있다.

鳥獸哀鳴海岳嘯(조수애명해악빈) - 새 짐승 슬피 울고 산악 해수 다 찡기는 듯
 槿花世界已沈淪(근화세계이침륜) - 무궁화 삼천리가 다 영락되다니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회천고) - 가을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 이승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정히 어렵구나.

- ①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심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의 시조’로 이별에 대한 내용이다.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ㅣ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성혼의 시조’로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는 내용이다.
- ③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ㅣ 안이라도 품엄 즉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글노 설워하느이다.
 ◆ 박인로의 ‘조홍시가(早紅柿歌)’로 돌아가신 어머니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O)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하노라.
 ● 원천석의 ‘회고가’이다.
 ● 懷古歌(회고가): 옛 자취나 지나간 일을 생각하여 지은 노래. 주로 **고려가 망한 후**,
 그 유신들이 고려를 회상하며 부른 노래를 이르는데, 길재(吉再)와 **원천석의 시조**가 유명하다.

(문제18) 정답: ④

(문제19)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철1차 문19)

- ① 소경 머루 먹듯 :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② 재미난 골에 범 난다 :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③ 깻묵에도 씨가 있다 :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④ 가물에 돌 친다 : 가뭄에 도랑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문제19) 정답 및 해설 (2017경철1차 문19)

- ① 소경 머루 먹듯 :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O)
 ◆ 소경: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세상 물정에 어둡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머루: 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잎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울릉도에 분포한다.

☺**영보이 암기tip**) 소경 머루 먹듯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한다.

② 재미난 골에 범 난다 :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X)
→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 ≒ 오래 앉으면 새도 살을 맞는다. > / 지나치게 재미있으면 **그 끝에 가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 < 골: 골짜기 >

☺**영보이 암기tip**) 재미있다고 골에 자주 가면 나중에는 범을 만나는 위험을 당한다.

③ 깻묵에도 씨가 있다 :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O)

☺**영보이 암기tip**) 깻묵에도 씨가 있듯이 하찮아 보이더라도 제 속은 있다.

④ 가물에 돌 친다 : 가물에 도랑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O) < 가물 = 가뭄 >

☺**영보이 암기tip**) 가물에 돌 치듯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제19) 정답: ②

(문제20) 토론에서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경찰1차 문20)

- ①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 ②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을 정리한다.
- ③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 ④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문제20) 정답 및 해설 (2017경찰1차 문20)

①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O)

◆ 토론은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 다양한 점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②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을 정리한다. (O)

◆ 토의(討議)와 다르게 토론(討論)은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여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점이 특징이다.

③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X) → 토론(討論)은 양쪽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說得)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貫徹)시키는 것이다.

④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O)

◆ 토론은 또한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그 주장이 적절한지 그리고 수용 가능한지 판단한다.

(문제20) 정답: ③

영보이 국어 2017경찰1차 국어 문제와 자세하고 신선한 영보이 해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와 함께 신선하고 자세한 해설 올려 드립니다. 해설만 읽어도 기본서를 읽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영보이 암기법이 있어 매우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실 때 칼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색깔이 칠해 있어 암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영보이 저서 -

- ◆ 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판매 중 >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